

發願者인 金融範에 관하여는 알 수가 없다. 高麗年代인 淸寧은 遼道宗代年號로서 十年까지이며 이것은 高麗文宗九年부터 十八年(一〇五五)~一〇六四)에 해당된다. 그러나 年數가 없으므로 어느 해인지 不明인데 이것은 혹시 脫落되었던지 또는 故意로 記入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六百般若經이라 함은 大般若波羅蜜多經 六百卷을 가리키는바 金銀字라 하였음에서 金字 및 銀字로 兩本을 따로 寫成한 것인지 또는 單本을 兩字로 쓴 것일까 아마도 後者의 경우일 것이다.

이 殘卷 十帳의 出處는 未詳인데 木函 안에서 發見되었다고 함에서 혹 腹藏品이 아니었을 가 한다. 發見年代는 日帝時라 하며 오랫동안 收藏하였던 것이라고도 한다. 八月 八日 扶餘向發直前 서울驛에서 暫見하였기에 간단히 記錄하여 둔다.

(追記) 再調한바에 의하면 以上十枚는 모두 大般若經卷一七五의 後半으로 連續된 것이다(海印寺藏經大般若一百七十五第九張般若波羅蜜多復次世尊若新學大乘...以下 第二十五張卷末) 各帳은 行數가 同一하지 않아 二十九行 乃至 三十二行이다. 따라서 글자에 大小가 注目된다(八月 十九日)

扶餘舊校里發見의 文字石片

洪 思 俊

一九四六年 봄으로 推想되는 扶餘邑舊校里出土 斷碑에 左記詩句가 있다. 破損된 形態로 보아서 文字面을 연마한 것이 아니고 花崗岩을 거칠게 다듬고 文字를 陰刻하였다. 出土地가 舊校里某家 안뜰에 使用한 것을 博物館에 搬入한 것인데 重量은 壯丁이 질 수 있는 石材이어서 扶蘇山附近 어느 곳에서 가져다 놓은 것으로 推測되는 것이다. 字大는 縱 3.5 cm 橫 3 cm의 楷書로 된 三行이다.

「登樓聞夕聲 臨壁憶
殘春天授二年利 重回
○○近 韓啓源」

樓에 오르니 저녁 쇠목소리가 들리고 벽에 다다르니 殘春이 아깝더라 (惜惜) 天授二年에 創建된 절인데
거들 「이 도라 왔더라」

第六卷 第八號 通卷六十一號

이와 같은 詩意로 韓啓源의 詩吟을 알겠는데 李朝時에 만들어 진것을 짐작할 수 있어 扶餘誌 官案을 보았으나 該當人名은 없다 이 詩句에서 注目 할 것은 天授二年과 「重回」라는 것으로 「重回」는 韓啓源이 二次에 걸쳐 扶餘에서 寺院에 왔던 것을 알겠으며 「天授二年」은 高麗王建太祖의 年號로서 西紀九一九년에 該當된다. 그러면 「天授二年利」은 지금부터 千有餘年前寺院에 韓啓源이 들린 것인데 이 斷石의 出土地가 舊校里이며 扶蘇山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서 扶蘇山에서 古利인 것이 分明하다.

지금 扶餘 扶蘇山北麓 白馬江左岸에 있는 阜蘭寺가 一般人士에게는 百濟古利인 듯 誤傳하고 있으나 當該寺域에는 高麗代의 石礎와 石柱이 있음으로 보아서 이 斷石도 阜蘭寺에서 流逸된 것이 아닐가 憶測되는 것이다. 扶蘇山周邊에는 寺址로 認定되는 地點이 以前에는 없음에서 그러한게 史料되는 바이다.

考古美術 一

◎文化財委第一分委(第十二次)

七月二四日 午前十時 文化財管理局 會議室에서 開催. 出席은 金庠基 金斗鍾 金允基 金載元 李弘植(委任) 李相佰 黃壽永委員 및 申榮勳專門委員外局課, 係長과 營繕係長.

報告事項

- 一、金庠基委員長發言
오즈음 新聞報道에 物議를 일으키고 있는 石窟庵濕氣에 對한 新聞社側의 一方的記事에 對하여 東亞日報 編輯局長에게 解明한데 對한 發言이 있었음
- 二、金孝經調查委員發言
(1) 石窟庵濕氣調査에 對한 現況과 除濕施設設置에 對한 報告
(2) 除濕施設에 構造 및 美觀上 拘碍을 받지 않으면 早速한 時日內에 除濕施設에 完壁을 期할 수 있겠음
- (3) 發電機設置에는 發電機의 騒音과 기름냄새 등을 參酌하여 位置를 定하도록 하겠음
- 三、石窟庵電氣施設關係